

## 2010년 대기업의 고용규모가 감소했다는데...

금년 4월 4일 일부 언론은 '대기업의 고용창출은 되레 뒷걸음질'과 같은 제목아래 2010년의 대기업집단 광공업 종업원 수가 2009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한 분석 결과, 보도와는 달리 30대기업집단 외감이상 광공업체의 고용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기업집단 안에 30대 기업집단이 포함됨에도 보도된 대기업집단의 광공업 고용규모는 30대기업집단의 광공업 고용규모보다 작았는데, 그 이유는 알기가 어렵다. 30대기업집단 외감이상 광공업체에 대한 고용규모를 추산한 배경은 '대기업집단'이 일반적으로 '30대 민간 기업집단'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어, 이번 보도가 민간 대기업집단이 실제와 달리 고용창출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이다.

- 금년 4월 4일 일부 언론은 '대기업의 고용창출은 되레 뒷걸음질'과 같은 제목아래 2010년 대규모 기업집단의 광공업 종업원 수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고 보도함
  - 보도에서 언급된 대기업집단은 자산 5조원 이상의 55개(계열사수 1,554개) 기업 집단으로 이중 광업·제조업 분야 기업 수는 327개임
-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KISVALUE DB를 이용하여 추산해 본 결과, 30대 민간기업 집단 외감이상 광공업체의 고용규모는 매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밝혀짐



- 30대기업집단 외감이상 광공업체의 고용규모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 중 꾸준히 증가하였음

- 30대기업집단 외감이상 광공업체의 종업원 수를 전체 광공업체 종업원 수로 나눈 비율과 언론에 보도된 대기업집단 광공업 고용비중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두 비율 모두 2009년에는 전년대비 상승한 반면, 2010년에는 전년대비 하락함
- 반면, 절대규모면에서 30대기업집단 외감기업 이상 광공업 고용은 2009년과 2010년 모두 증가한 반면, 보도된 대기업집단 광공업 고용은 2009년에는 증가하였으나 2010년에는 감소하여 차이를 보임

30대 기업집단 외감기업 이상 광공업의 종업원 수와 보도된 대기업집단 광공업 종업원 수 추이 비교

(단위: 천명, %)

|                                   | 2008  | 2009  | 2010  |
|-----------------------------------|-------|-------|-------|
| 30대기업집단 외감기업 이상 광공업 종업원 수 (A)     | 495   | 531   | 549   |
| 대기업집단 광공업 종업원 수 (일부 언론 보도) (B)    | 445   | 457   | 441   |
| 광공업 전체 종업원 수 (C)                  | 2,467 | 2,465 | 2,648 |
| 30대집단 외감이상 광공업 종업원 수 비율 (A/C×100) | 20.1  | 21.5  | 20.7  |
| 대기업집단 광공업 종업원 수 비중 (B/C×100)      | 18.0  | 18.5  | 16.6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기업집단 정보공개시스템/KISVALUE

- 전체 대기업집단 광공업 고용규모가 30대기업집단 광공업 고용규모보다 작게 나타난 원인은 알기 어려움
  - 보도된 대기업집단 광공업 고용은 연도별로 5만명에서 10만명 가까이 30대기업집단 광공업 고용보다 작았음
  - 대기업집단 안에 30대기업집단이 포함되므로 대기업집단 광공업 고용이 30대 기업집단 고용보다 커야함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알기가 어려움
- 30대기업집단 외감이상 광공업체의 고용규모를 추산한 것은 이번 보도로 민간대기업집단이 실제와는 달리 고용창출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임
  - ‘대기업집단’은 일반적으로 ‘30대 민간 기업집단’과 같은 개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이번 보도는 민간 대기업집단이 실제와는 달리 고용창출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게 할 수 있음